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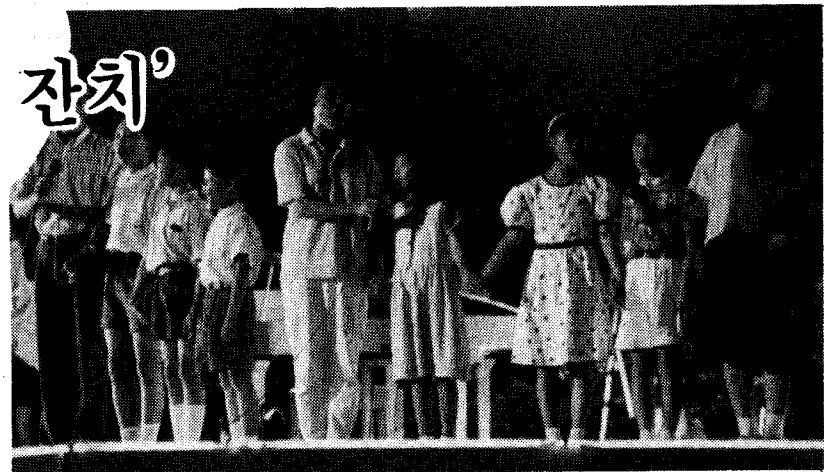
어설픈 흥만 남긴 '소문난 잔치'

'겨레의 노래' 공연을 보고

가람비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마뭇바다까지 모자른다. 환상적인 조명연출속에서, 공연후 관객들이 무대위에 올라와 한바탕 어깨춤으로 아쉬움 달래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나오자 환호와 함께 뜨거운 박수, 음반-테이프-팝플렛 등이나 잡잡한 판매 실적 <8월 21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공연장 풍경기>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19일 <20일 연이상은 기사에서 휘황찬란한 문구로 스스로를 극찬했던 '겨레의 노래' 물결, 더더욱 가관인 것은 '교배'의 작가 윤정모씨의 관련기까지 동원하여 찬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장을 나서면서, 이 땅 진정한 겨레의 노래는 어떠한가 하며 또한 대중은 무엇인가에

대해 일어나는 희의를 지을수 없었다. 오히려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주제하에 벌어진 이번 공연은 대중의 낭만적이고 감성적 정서와 상업주의 정신이 시의적절하게 맞아 떨어졌 그야말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겨레의 노래'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공연은 어느 대중가수의 공연물과 같은 수위,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충분한 내용성을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해서였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 겨레 모든이가 함께 느끼고 즐길수 있는 마당이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동요와 대학생들의 중후소리, 그리고 노랫노래의 노래를



◇ 겨레의 노래' 공연은 노래운동의 대중화와 상업주의 화라는 이견속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



'겨레의 노래' 사업단을 찾아



◇총감독 김민기씨를 비롯 연극배우, 성악가, 무용수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잊혀져간 것들을 그대는 알 수 없다 하여도 세월이 가리워져 죽음같은 어둠에 묻혀 있어도...이세상에, 어딘가에 내가 찾고싶은 그것이 있고...'

가수 최진영의 목소리가 가득 찬 지하사무실은 지방 전화통화소리, 머리를 맞댄 모습들로 들 어선 기자가 무색할 만큼 바쁜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악보, 무대설계도, 하다못해 지방공연 일정표에서 지금 '겨레의...'이 무엇을 고민하고 해내는 곳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무실 한구석에 쌓인 노래책, 음반, 공연 팸플렛들을 그 고인명여리의 한 결실이라 할 수 있을가.

'노래 선정 자체를 전통과 현대, 순수와 대중, 남과 북을 뛰어넘어, 민족통일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노래로써 찾으려 했습니다.'라는 제작감독 안태경씨의 말은 이미 사무실에

서 만난 대중가수 조영남과 민중가요의 김민기, 김태호 교수가 같이 머리를 맞댄 모습이 증명하고 있었다.

앞으로 있을 지방 순회공연이나 전래동화에 바탕한 아동극 희곡공모 계획 또한 노래속에 이겨려 모두의 모습을 담으려는 이들의 의지를 말해주는 듯 하다.

물론 노래운동의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노래운동 자체를 희석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음악인들의 우려를 '겨레의...'가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지금'은 말초신경제나 구호가 아닌 이 겨레 모든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안태경씨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해화동 뒷골목 지하사무실, 이곳은 우리모두가 이 세상에, 어딘가에 내가 찾고싶은 그것'을 노래로써 찾아가는 한정잡다리가 될 것이다. <鈴>

"정말 건강하고 진실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그것을 대중과 함께 호흡하려 했다면 좀더 철저한 문제의식으로내용의 충실성을 기해야하지 않았을까 한다"

성과 대안의 부재속에서 진행되었던 결과일 것이다. 노래 문화의 건강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진정 무엇이 겨레의 노래인가. 정말 건강하고 진실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고 그것을 대중과 함께 호흡하려 했다면 좀 더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더불어 노래운동의

있고, 거리에서는 친구 형제지간에 화염병과 최루탄, 돌맹이와 쇠파이프가 맞부딪치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이땅의 젊은이들이나...<'이세상'에 덧붙인 글 중에서>

강 준 원 <사학·2>



과수원 길

사진: 조한철 <철학·3>



저강도 전략

미국의 제3세계 정책

레이건 정부 집권 1기의 기본적인 제3세계 전략은 보수강경주의자로 알려진 미국의 전 UN대사였던 진 커크패트릭 여사의 주장을 반영한 '진 커크 패트릭' 독트린이었다. 커크 패트릭 독트린의 요지는 이란의 팔레비 정권의 붕괴에서 얻은 결론 즉 '어떤 독재든 반미내지 공산독재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카터의 인권, 도덕 정책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그러나 집권2기 레이건의 제3세계 전략은 '저강도 전쟁' 혹은 '저강도 분쟁' (Low Intensity Warfare, Conflict)으로 요약되는 레이건 독트린으로 전개되었다. 아프리카나스, 암골라, 캄보디아, 니카라과아 등의 분쟁지역의 반제국주의적 정권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콘트라' (CONTRA:반혁명계열라)에 의해 약체화시키고, 엘살바도르, 필리핀등의 좌익 게릴라들은 직접적이고 강경한 군사개입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마

음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새로운 전략, 즉 저강도 전략을 쓰게 되었다. 군사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전략행위를 사용하는 전쟁 등을 최고강도 전쟁, 통상 전쟁보다는 적은 자원과 인력을 사용하고 사상자도 거의없는 전쟁을 저강도 전쟁이라 규정하고 있다. 레이건이 저강도 전략을 채택한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다. 통상적인 전쟁에만 치중하고 영토확보에만 집착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괴리되어 결국은 실패한 데서 그 교훈을 찾은 것이다. 레이건은 1986년 2월 신년도정 부교서 및 같은해 4월 동남아 국가 순방에서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서는 미국은 적극적인 저강도 전략을 표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레이건은 필리핀에서의 마르코스정권의 붕괴와 2월혁명에 이은 코라손정부의 출범을 아시아에서의 저강도 전략의 성공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저강도 전략은 미국 스스로에 의해 전쟁의 전략이 아닌 평화와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계획이라 여겨지며 레이건 제2기의 제3세계 정책의 기본을 이루었다.

이 석 호 <국제평화 연구소 간사>

9월초 차대 대학로에서 사진전 약대도 시영(靑靑)전 가져

차대대학 사진연구회는 오는 9월1일부터 9월까지 대학로 예충회관에서 DAPO사진전을 갖는다. 또한 약대 사진반도 다음날인 9월4일부터 이틀간 명동유네스코 회관에서 8번째 시영전을 갖게 된다.

영국은 유진오닐의 창년기, 불우했던 가족생활을 유진오닐 자신이 가족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쓴 자전적 연극이다. 조영진 (문리대 영문·3)군의 연출아래 총 4명이 출연하며 첫 제날은 4시 30분, 7시에, 둘째날은 2시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막을 올린다.

여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구성한 작품으로, 특히 전교조 결성으로 더욱 첨예화된 각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교육에 대한 비민주적 환경과 모순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음악극과 아동극을 접목한 양식으로 공연시간은 4시30분, 8시이다(월, 화 휴관 744-7090)

극단 연우무대 정기공연 '최선생'

극단연우무대가 오는 9월15일부터 10월21일까지 연극 '최선생'을 무대에 올린다. '최선생'은 요즘 교육현장에서 일고있는 참교육에 대한 논란들을 지난해 의식화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어느 국민학교

'노랫사' 신입단원모집 건강한 삶의 노래를 추구하는 전문노래모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5일까지이며, 모집방법은 동료들에 위치한 '노랫사' 연습실에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 및 실기를 보게된다. (338-9948)

실존

한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결코 현실의 모습이 나와는 무관한 것일수 없다. 그럼또한 현실을 외면한 소수 몇몇을 위한 그림일수는 없는 것이다. 이땅 구석구석 외면할수 없는 아픔이 진실로 가슴깊이 다가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서나마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모습인 것이다.



그림: 석경애 <미교·4>

지상천람회

인간존중의 경영



1/10입니까? 10/10입니까?

잠재된 힘은 발휘될 때 그가치가 드러납니다.

빙산의 일각, 1/10—원대한 포부, 뜨거운 정열, 도전과 개척의지, 그리고 끝없는 탐구정신 등 넓이와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능력은 최정에 따라 1/10만 발휘되기도 하고, 10/10 모두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념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가—조직의 운영은 합리적이되 그 구성원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가—일에 대한 보상은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수준인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드러나지 않는 힘'—개개인 모두가 10/1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재육성임은 력키금성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